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
	보도	2018. 9. 6.(목) 09:00	배포

담당부서	국제협력국	임세희 국장(3145-7890), 정병찬 부국장(3145-7895)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 : 「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」 개최

1 개 요

□ 금융감독원은 '18.9.6.(목)~9.7.(금) 이틀에 걸쳐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(IFSC*)를 개최

* IFSC;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s Conference

-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IFSC는 세계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임
- 이번 서울회의에는 영국, 일본, 독일, 캐나다, 호주, 싱가포르 등 14개국 감독당국의 담당 임원들이 참석하였음

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개요

- ◆ 개요 : 유럽·북미·호주·아시아의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간 연례회의('99년 ~)
- ◆ 회원국 : 한국, 일본, 호주, 싱가포르, 캐나다, 영국, 독일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스위스, 노르웨이, 스웨덴, 헝가리, 아이슬란드, 덴마크, 아일랜드
- ◆ 회의개최: 각 회원국이 순차 개최(우리나라는 '02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)

- 이번 회의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사회(세션4는 이상제 부원장)로 진행되며, 감독현안 공유(세션1)에 이어, 각 회원국의 공통 관심사가 반영된 4개 주제*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

* ① 가상화폐·ICO·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, ②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·법규준수를 위한 감독 방안, ③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 포용정책 운영 방향, ④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 방안

- 주제발표 및 토론 세션은 3~4개 회원국이 자국의 감독경험 및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이후 모든 참여국이 토론에 참여
- 금감원은 ‘가상화폐·ICO·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’(세션2)에 대해 주제 발표

2 개회사 주요내용

-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(9.6일)를 통해 금감원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혁신 노력을 소개하고, 각 논의 주제 별로 금감원의 감독방향을 설명하였음
-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는 긍정적 효과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새로운 리스크도 수반하므로, 보다 정교한 감독상 접근과 국가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글로벌 규율체계가 필요함을 강조
- 핀테크 등 기술의 발전으로 내부통제 실패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회사의 올바른 유인체계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소개
- 금융민원·분쟁에 대한 사후구제 노력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 감시 및 소비자보호 수준 공개 등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간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

- 아울러, 국제적 자금이동과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초국가적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하여, 각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수준이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

3 세션별 주제발표 주요 내용

- (세션1) 모든 참여국이 자국의 주요 감독현안을 발표
- (세션2) 우리나라, 네덜란드(DNB, 중앙은행), 영국(PRA, 건전성감독청)이 각국의 핀테크 현황,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핀테크 생태계 구축 지원노력, 가상화폐 · ICO에 대한 대응방향을 발표
- (세션3) 싱가포르(MAS, 통화감독청), 호주(APRA, 건전성감독청), 아이슬란드(FME, 금융감독청), 캐나다(OSFI, 금융감독청)가 내부통제 · 법규 준수 제도, 적격성 심사제도, 검사기법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
- (세션4) 스웨덴(FSA, 금융감독청), 독일(BaFin, 금융감독청), 노르웨이(FSA, 금융감독청)가 금융교육,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, 건전 소비자대출 지침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
- (세션5)일본(FSA, 금융청), 오스트리아(FMA, 금융시장청), 헝가리(MNB, 중앙은행), 덴마크(FSA, 금융감독청)가 자금세탁 방지체계, 리스크중심 검사 방법, 국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발표

4 기대효과

- 이번 회의는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 방향을 확인하고 감독당국간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
- 금감원은 앞으로도 IFSC 회의 운영 및 의제 설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, IFSC를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중요한 협의채널로 활용해 나갈 계획

<붙임>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(IFSC) 프로그램

<별첨>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개회사

9.6일(목)

시 간	내 용	비고
08:30-09:00	참석자 등록	
09:00-09:10	개회사	금감원장
09:10-09:20	포토세션	
09:20-11:00	세션 1 : 각국 감독기구의 최근 현안	
	사회 : 유광열 수석부원장	
	▪발표 : 각국 감독기구 (14개 기관)	
11:00-11:20	휴식	
11:20-13:00	세션 2 : 가상화폐·ICO·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	
	사회 : 유광열 수석부원장	
	▪발표1 : Olaf Sleijpen (Division Director)	네덜란드 중앙은행 (DNB)
	▪발표2 : 이근우 (핀테크지원실장)	금감원 (FSS)
	▪발표3 : Laura Winchester (Head of Department)	영국 건전성감독청 (PRA)
	토론 및 Q&A	
13:00-14:30	오찬	
14:30-16:30	세션 3 :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·법규준수를 위한 감독 방안	
	사회 : 유광열 수석부원장	
	▪발표1 : TAI Boon Leong (Executive Director)	싱가포르 통화감독청 (MAS)
	▪발표2 : Mark Adams (Executive General Manager)	호주 건전성감독청 (APRA)
	▪발표3 : Jon Thor Sturluson (Deputy Director General)	아이슬란드 금융감독청 (FME)
	▪발표4 : Patrick Clermont (Senior Advisor)	캐나다 금융감독청 (OSFI)
	토론 및 Q&A (금감원 토론자 : 최성일 부원장보)	

9.7일(금)

시 간	내 용	비 고
09:00-10:40	세션 4 :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정책 운영 방향	
	사회 : 이상제 부원장	
	▪발표1 : Malin Omberg (Executive Director)	스웨덴 금융감독청 (FSA)
	▪발표2 : Dorothee Kohleick (Head of Division)	독일 금융감독청 (BaFin)
	▪발표3 : Lisbeth Strand (Head of Department)	노르웨이 금융감독청 (FSA)
	토론 및 Q&A (금감원 토론자 : 진태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)	
10:40-11:00	휴식	
11:00-12:40	세션 5 :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방안	
	사회 : 유광열 수석부원장	
	▪발표1 : Hiroshi Ozaki (Director)	일본 금융청 (FSA)
	▪발표2 : Katharina Muther-Pradler (Head of Department)	오스트리아 금융시장청 (FMA)
	▪발표3 : Gergo Szeniczey (Executive Director)	헝가리 중앙은행 (MNB)
	▪발표4 : Rikke-Louise Crum Petersen (Deputy Director General)	덴마크 금융감독청 (FSA)
	토론 및 Q&A (금감원 토론자 : 김미영 자금세탁방지실장)	
12:40-13:00	Wrap up 및 폐회	
	사회 : 유광열 수석부원장	
	▪차기 개최지 발표 (영국)	
	▪폐회	